

제14권 15호

2024. 7. 22~2024. 8. 4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축소경제 시대에서 금융의 역할
- 이슈분석 온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자산관리 계획
- 금융경영브리프 연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M&A 시장
 日 노무라증권, 해외 기업인수 통한 자산관리부문 강화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韓, 금융안정 부각되며 인하 지연 전망
 외 환 : 살아남은 트럼프를 이긴 파월의 비둘기
 부동산 : 심리와 가격 모두 수도권 중심 회복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소장	정희수(heesoo_jung)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재완(jwan.lee)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서유나(yuna.seo)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선임연구위원	김완중(wjkim)
외 환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부동산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이예린(yerin.lee)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4권 15호

2024. 7. 22~2024. 8. 4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축소경제 시대에서 금융의 역할
- 04 **이슈분석**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자산관리 계획
- 08 **금융경영브리프** 연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M&A 시장
日 노무라증권, 해외 기업인수 통한 자산관리부문 강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韓, 금융안정 부각되며 인하 지연 전망
외 환 : 살아남은 트럼프를 이긴 파월의 비둘기
부동산 : 심리와 가격 모두 수도권 중심 회복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축소경제 시대에서 금융의 역할*

정 희 수 소장

저출산·고령화는 성장사회(growth society)를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축소경제 시대에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지방의 공동화, 세대갈등의 심화, 저축률의 하락, 투자자산 수요 감소 등의 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축소경제 시대에는 민간과 정부의 균형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자산관리, 부동산의 유동화, 요양사업의 참여, 시니어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저출산·고령화가 이끄는 축소경제 시대의 도래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에서도 ‘미래대응금융 TF’를 구성해 인구, 기후, 기술 등 3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는 인구 변화이며, 저출산·고령화는 성장사회(growth society)를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연간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1970년대 101만 명에서 2000년대 45만 명, 2023년 현재 23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이 30~40년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8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 705만 명)의 고령층 편입이 완료되었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 954만 명)의 은퇴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4.7%, 2010년대 3.1%, 2020년 이후 2.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제 2%대 성장이 일반화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외생변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IMF에서 언급한 축소경제(shrink-economy)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시대에 진입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축소경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온 것이 아니다. 이른바 ‘회색 코뿔소’(Grey Rhino)의 위험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다가왔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축소경제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세대 갈등 심화

이론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경제권이 집중되면서 지방 공동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약화되어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다. 또한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축소경제의 미래는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 특히 축소경제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중에서,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generation gap)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현 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는 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세대 갈등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

한편, 축소경제 시대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중요해진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노동(L), 자본(K), 기술혁신 등을 3대 생산요소로 보는데, 주어진 자본 수준 하에서 인구, 즉 노동이 줄면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블록체인(block-chain), 가상자산, 메타버스, AI 등을 거쳐 Chat GPT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신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축소경제의 제약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기술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하고, 또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의 인프라 기반인 R&D 투자는 이제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 축소경제 시대에 맞게 금융의 역할도 서서히 바뀌어야

축소경제는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를 준다. 고령화로 인해 은퇴 세대가 많아지면 가계의 저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령층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젊은 세대는 가상자산, STO 등 전통 자본시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투자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헷지할 금융수단도 많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되풀이 되어 온 부채를 통한 성장모델도 축소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1%로 낮아졌으나, 기업부채 비중은 12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라도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필요하다.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5.1%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축소경제 시대에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령층 관련 사회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민간과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책의 마련이 중요하다.

축소경제 시대에 맞게 금융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인구 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적립기부터 인출기까지 사적연금을 통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수익률 관리를 통해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유한 부동산의 유동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은퇴 이후 현금흐름(cash flow)이 중요한데 대부분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현금화가 어렵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택연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도 요양사업(요양원, 실버타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치매, 간병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형 요양시설이 필요한데 자본이 풍부한 금융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언대용신탁, 치매·간병보험 등 다양한 시니어 금융상품(신탁, 보험)으로 고령층을 지원해야 한다. 

저축률 하락과 함께
투자자산 수요 감소

민간과 정부의
균형적 대응책 마련

고령층을 위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자산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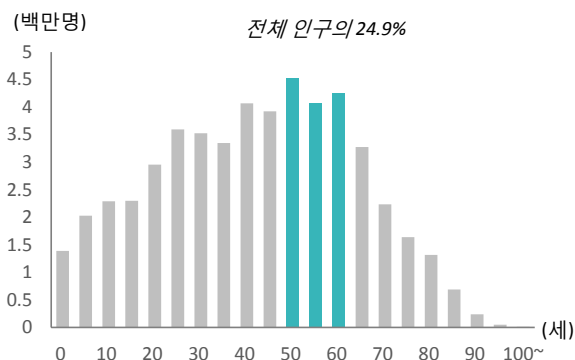
이재완 연구위원

50~64세 대중부유층 시니어가 은퇴에 직면하며 새로운 자산관리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들은 연금 형태로 은퇴 후 생활비 조달을 희망하나 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정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은퇴준비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대중부유층 시니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산 활용이 제한적이라 향후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중심이 아닌 실물자산을 고려한 종합 은퇴금융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산관리 시장에서 대중부유층과 시니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50~64세 대중부유층 시니어가 은퇴에 직면하며 새로운 자산관리 단계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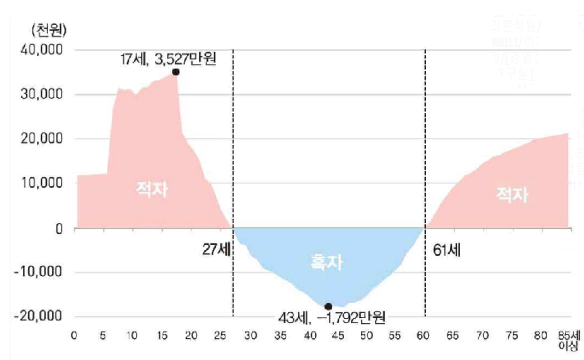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미래 자산관리의 큰 축이 시니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구조상 중요 세대인 50~64세는 은퇴시기에 직면
 - 50~64세는 전체 인구의 1/4 수준인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24.1%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유지
- 중산층과 고액자산가 사이의 계층을 의미하는 대중부유층(Mass Affluent)의 자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
 - 당 연구소의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50대가 대중부유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들은 높은 소득과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향
- 60세 이후에 생애주기 상의 개인수지 및 소득구성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50~64세 대중부유층 시니어들은 은퇴준비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에 직면

■ '23년 50~64세 인구분포



자료 : 통계청

■ 생애주기 상의 개인수지 적자('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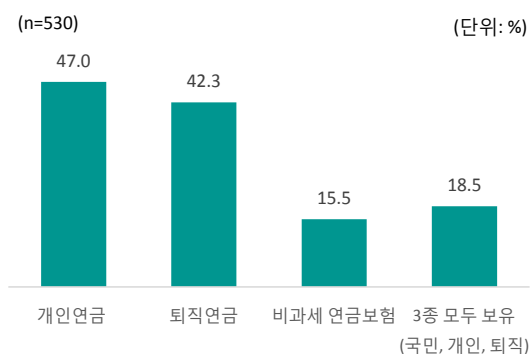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에서 42세에 흑자의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며 61세에 적자로 재전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는 가구소득이 가장 크지만 근로소득이 줄고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소득 구성의 변화가 생기는 변곡점

■ 은퇴를 앞둔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노후 재정준비의 핵심 니즈는 정기적인 소득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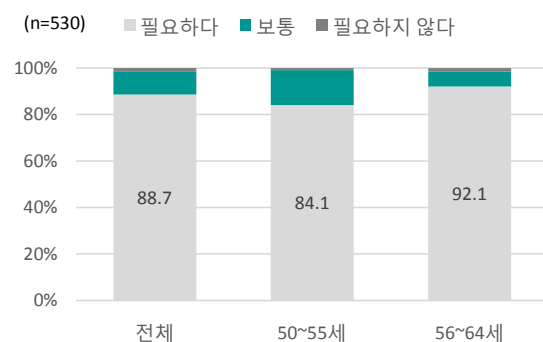
- 당 연구소는 은퇴를 앞둔 대중부유층 시니어(금융자산 1~10억 보유, 50~64세)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
- 은퇴를 앞둔 대중부유층 시니어는 은퇴 후 재정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은퇴 후 월 생활비의 2/3을 종신토록 보장되는 연금 형태로 조달하기를 희망
 - 응답자의 58.5%가 은퇴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
 - 부부기준 은퇴 후 적정 월평균 생활비는 291.4만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58.2%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 형태로 조달하고 싶다고 응답
- 하지만 은퇴 후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수준은 미흡한 상황
 - 은퇴 후 생계유지를 돕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08년 50%에서 '28년 40%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중요성이 확대
 - 조사 결과 개인연금 보유자는 47.0%, 퇴직연금 42.3%, 비과세 연금보험은 15.5%였으며 3종 연금(국민/개인/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한 응답자는 18.5%에 불과
- 노후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으로 대두
 -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88.7%가 '은퇴 후 현금흐름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응답
 - 50~55세 응답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인컴투자'(27.3%) 및 '현금 및 금융자산 연금화'(25.6%)를 우선 고려하고, 56~64세 응답자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27.7%) 및 '현금 및 금융자산 연금화'(29.4%)를 우선 고려

■ 연금상품 보유 현황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은퇴 후 소득설계 필요성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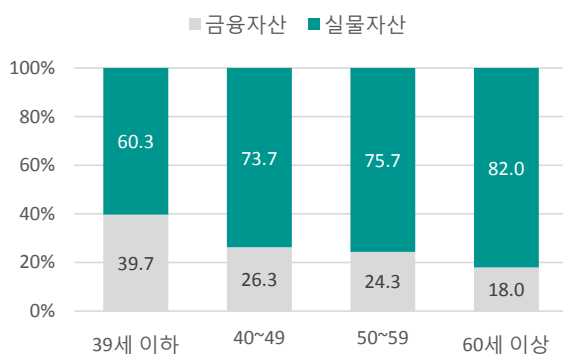
■ 이들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산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가 제한적

- 전체 주택 보유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5060세대는 은퇴 후에도 독립적 거주지를 희망
 -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506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수는 약 59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인 48.8%를 차지, 주택자산가액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54.5% 차지
 - 연구소 행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7.0%가 은퇴 후 실버타운 거주, 자녀와 함께 거주 등보다는 ‘혼자/부부 독립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
- 과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주로 활용되며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노후생활자금 마련 시 유동성 제약이 우려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39세 이하 60.3%, 40대 73.7%, 50대 75.7%, 60세 이상 82.0%로 점차 증가,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

■ 은퇴 직면 시니어는 자산구성 및 대출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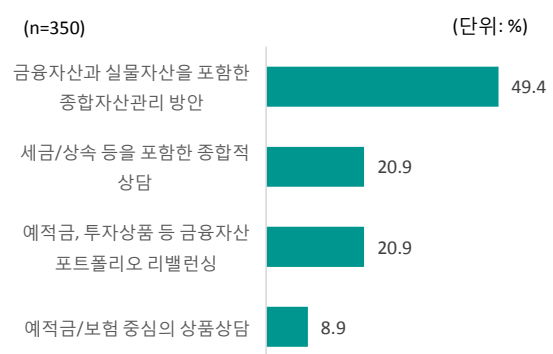
- 본격적인 은퇴시점인 56세 이후에 부채규모는 감소하나 주담대 부담은 지속
 - 50~55세 응답자의 33.9%, 56~64세 응답자의 29.0%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 특히 평균거래가 17억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규모가 3억 미만인 응답자는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보유
- 향후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은퇴 후 자금마련을 하려는 니즈 존재
 -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3.8%가 작은집/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 주택연금, 매매 후 현금화 등을 통해 현재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 할 계획이라고 응답
-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는 단순 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넘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점의 노후 자산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응답자의 49.4%가 향후 노후 설계를 위한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방안’이라고 응답

■ 연령대별 보유자산 구성



자료 : 통계청

■ 은퇴 후 노후자산관리 서비스 니즈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금융상품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자산까지 고려한 은퇴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기대

- 금융권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 관련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중부유층 시니어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은 저조
 - 하나은행 연금더드림라운지, KB 골든라이프센터 등 시니어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연대용신탁 등 시니어 세대 특화 상품을 출시
 - 하지만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시니어 중 은퇴설계를 위해 전문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
 - 주된 자산관리 서비스 비경험 사유는 상담받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44.7%)
- 향후 은퇴설계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으며 특정 상품판매에 매몰되지 않는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호
 - 응답자의 57.9%가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 66.0%가 향후 은퇴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전문가 자산관리 서비스 경험자들은 개선사항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만 판매하는 경향’(25.9%), ‘상품위주 상담으로 종합 자산관리 상담 미흡’(25.9%)을 지적

■ 금융회사는 대중부유층 시니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은퇴금융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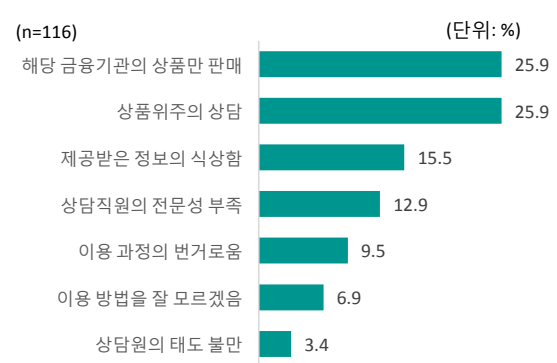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을 노후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은퇴에 따른 상속 등을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특정 금융상품 및 자사 상품에 치우치지 않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니어의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형성할 필요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산기준을 재정비하여 고객의 심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에 집중하기 보다는 종합적 은퇴설계를 통한 장기적 관계형성에 초점 

■ 전문가 자산관리 서비스 비경험 사유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자산관리 서비스 불만족/개선필요 사항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연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M&A 시장

서 유 나 연구원

2024년 상반기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약 1조 3,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초 이뤄진 대형 거래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지연과 지정학적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뤄지지 못한 모습이다. 투자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연말부터 기술, 에너지·자원 부문을 중심으로 M&A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M&A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 참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상반기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1조 3,200억 달러를 기록^[1]

- 올해 M&A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연초 기대와는 달리 2024년 상반기 글로벌 M&A 거래액은 2023년 상반기 대비 5.3% 증가한 1조 3,200억 달러를 기록
 - 상반기 M&A 거래량은 21,4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 감소
-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Mega-Deal)이 20건이 있었던 반면, 5억 달러 미만의 거래 건수가 28% 감소하는 등 대형 딜 위주로 M&A 거래가 진행
- 산업별 거래액은 기술 및 미디어, 통신(TMT)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1%, 에너지 부문은 약 48%, 금융 서비스 부문은 약 28% 증가^[2]
- 반면 헬스케어 부문의 경우 제약 회사가 핵심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 대규모 공개 거래에서 소규모 비공개 거래로 관심을 돌리면서 거래액이 약 22% 감소

■ 금리 인하 지연과 지정학적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 부진

-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 주식 시장 강세로 인해 인수자와 피인수자 간의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이 지연된 것 등이 주요 부진 요인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진행·예정된 유럽, 미국 등의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 등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미루는 모습
- 기술 및 에너지 부문의 M&A 거래는 생성형 AI의 발전, 사이버 보안,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유·가스 분야의 통합 등의 이슈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

[1]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mid-year outlook”, PwC, 2024.6.25

[2] “Banker Say 2024 M&A Is Just Good When It’s Should’ve Been Great”, Bloomberg, 2024.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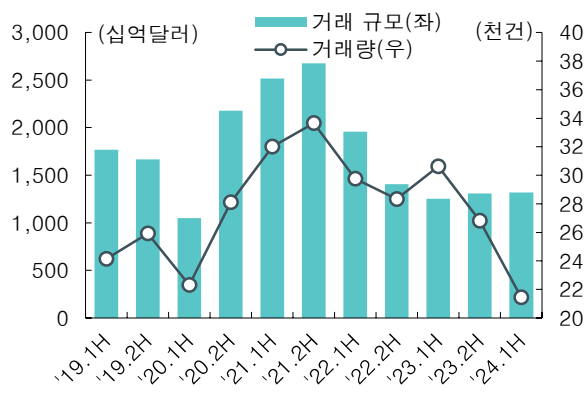
■ M&A 시장의 성장은 금리, 규제 및 정책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연말부터 가속화될 전망

- 일반적으로 휴가철을 맞은 7월과 8월은 거래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美 대선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연말부터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및 유로존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부채를 통한 인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M&A 거래가 증가할 전망
 - 미국 및 유럽 레버리지 대출 시장에서 부채 발행은 2023년 3,790억 달러와 비교해 2024년 상반기에만 3,5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
- AI, 자동화 및 보안과 관련된 거래는 업종을 막론하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광물 확보, 입지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자원 부문도 수요가 유지될 전망

■ M&A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 참여 전략을 모색할 필요

- 글로벌 M&A 시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금융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경쟁력 높은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딜을 지속 확대 중
 - 2024년 상반기 기술 부문의 M&A 거래 4,261건 중 69%가 소프트웨어 분야
- 또한, EY가 전 세계 21개국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³⁾에서 기업의 가장 큰 거래 동인은 AI 전환과 사이버 보안, 비용 최적화 관련 솔루션인 것을 감안할 때 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운용이 중요해질 듯
 -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화, 수익모델 강화 및 사업 다각화 등이 우선 고려 대상
- 국내 금융사들은 M&A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글로벌 M&A 동향을 분석하고 리파이낸싱(차환) 등 인수금융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인수자로서의 M&A 참여도 전략에 반영할 필요 

■ 글로벌 M&A 거래 규모(상반기 기준)



주: '24.1H의 경우 5.31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값
자료: LSEG, PwC

■ 2024년 상반기 주요 M&A 현황

부문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기술	Synopsys	Ansys	350억 달러
	Hewlett Packard Enterprise	Juniper Networks	140억 달러
에너지	Diamondback Energy	Endeavor Energy Resources	260억 달러
	ConocoPhillips	Marathon Oil	225억 달러
	EQT Corp	Equitrans Midstream	140억 달러
금융	Capital One	Discover Financial Services	350억 달러
	Stone Point Capital	Truist Financial	155억 달러

자료: Bloomberg, Reuters

[3] "EY CEO Outlook Pulse Survey: How CEOs juggle transformation priorities", EY, 2024.4.30

日 노무라증권, 해외 기업인수 통한 자산관리부문 강화

김 지 현 연구위원

노무라증권이 자산관리서비스 부문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자문 또는 대체투자상품에 강점을 보유한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日 개인투자자들이 현금·예금 중심의 보수적 성향에서 투자상품으로 변화하며 자산관리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日 금융사들은 해외 운용사에 적극 제휴, 출자 및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상품 및 판매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도 부유층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특화 중이며 해외 투자 니즈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글로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노무라증권이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외 자산운용사 기업인수에 나선다고 발표^[1]

- 노무라증권은 자산관리 자문 또는 대체투자상품 운용에 강점을 보유한 해외 자산운용사 대상 기업인수를 추진해 자산관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발표
- 동사는 IB와 위탁매매 솔루션 수익구조 탈피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익다변화를 시도하며 해외지분 투자 및 기업인수를 확대해 왔음
 - KKR, Carlye Group, Blackstone 등 해외 자산운용사 30여개와 제휴해 원스톱 글로벌 대체투자 솔루션 서비스 Nomura Alternative Connect를 구축중이며 '25년 3월 런칭할 예정

■ 최근 日 개인투자자가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관리 방향을 전환해 시장성장력 상승 전망에 기인

- 日 정부의 상장기업 가치 제고 정책,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 유도, 해외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며 보수적 성향의 日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 선호도 상승
 - 日 닛케이 지수 : '20년 7월1일 21,710 → '23년 7월9일 32,391 → '24년 7월 11일 42,278
 - 가계금융자산(23년 4분기)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141조엔을 기록해 5분기 연속 최고를 경신했으며, 투자신탁 보유 잔고는 22.4% 증가한 106조엔, 주식은 29.2% 증가한 276조엔 기록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2018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 '23년 9월말 기준 2,034만 계좌를 기록하며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가계의 23년4분기 기준 현금·예금 보유 비중은 52.6%(1,117조엔)로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부문의 결정적 수입원으로 작용할 전망
 - 노무라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확대로 24년 3월말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0% (568억엔) 급증했으며, 기존 WM과 신규 WM 손님 계좌 잔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51% 상승

[1] "Nomura seeks global acquisitions to expand wealth management business", 2023.06.30, 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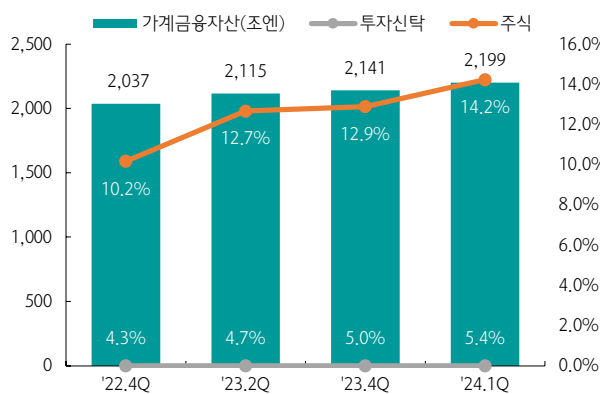
■ 일본 금융사들은 글로벌 IB와 적극 제휴해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형 대면채널을 확대 중

- 일본 금융사들은 개인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해외로 투자 및 운용처를 넓히고 있으며, 해외 운용사의 출자, 인수에 적극 나서 글로벌 상품 및 판매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
- MUFG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AlbaCore Capital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모대출 부문을 강화해 대체투자자산 서비스 제공을 확대('23)
- SMFG는 영국 자산운용사 TT International을 약 200억엔에 인수('20)했으며, 노무라는 美 자산운용사 American Century Investment를 약 10억달러에 지분 40% 취득('15)
- Mizuho는 올해 점포 310여개 중 40%를 접근성이 높은 대형 상업시설내로 이전하고 자산관리 상담 중심의 컨설팅 점포로 운영할 방침
 - 신형 컨설팅 점포들은 기존 은행 업무는 디지털로 대체하고 상담 니즈에 집중할 예정

■ 국내 금융사도 부유층 대상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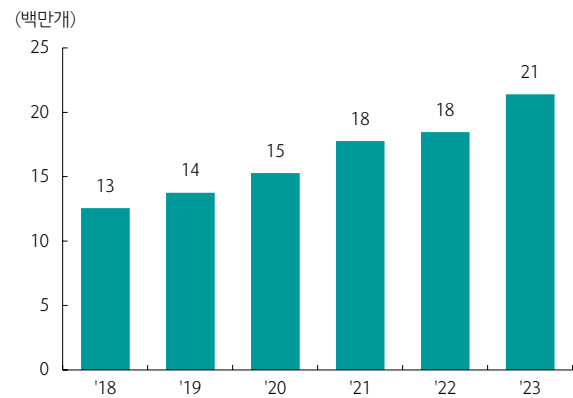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사도 수익다각화를 위해 부유층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확충부터 점포 확장, 맞춤형서비스 특화로 자산관리서비스 경쟁이 심화 중
 - 우리은행은 자산관리전문은행 도약을 선언 후 자산관리드림팀을 발족하고 특화 영업점 확대 중이며, 신한은행은 투자은행의 장점을 접목한 종합자산관리, 하나은행은 가업승계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오픈해 부유층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 최근 국내 부유층들은 해외 주식부터 부동산, 국채, 대체투자, 미술품 등 해외자산 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방면의 해외투자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도 다양한 글로벌 투자 상품 확대 및 판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선제적인 전략 수립 필요 

그림 1 | 일본 가계금융 구성 및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 일본 NISA 계좌 수 추이(누적기준)



자료 : Statista

금리: 韓, 금융안정 부각되며 인하 지연 전망

김 완 중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금리는 美 고용지표 수정, 예상치를 하회한 CPI 등으로 연준의 9월 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한국은 ‘금리인하로 차선변경’이라는 정책기조 변화 시사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부각되며 조기 인하론이 소멸되었다. 향후 국내 금리는 대외발 금리하락 압력 지속과 기준금리 인하 2회분 선반영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보다는 좁은 레인지하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美 고용 및 물가 지표 부진에 따른 9월 인하 가능성 증대로 하락 압력 부각

- 6월 美 비농업 고용은 +20.6만명을 기록해 예상치(+19만명)를 상회했으나 과거 통계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식되며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 본격 대두
 - 4~5월 통계 수정으로 3개월 평균 신규 고용(17.7만)이 21.1월 이후 최소 수준 기록
- 美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세 지속과 주거서비스 오름세 둔화로 각각 3.0%/3.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3.1%/3.4%)를 하회
 - 美 CPI/PPI상승률(% YoY) : 4월 3.4/2.2 → 5월 3.3/2.2 → 6월 3.0/2.6 (예상 3.1/2.5)
-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한 ECB는 2.5% 내외 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 부진 등을 고려한 추가 인하를 시사해 시장은 분기당 1회 가능성을 반영
- 글로벌 금리는 美 물가·경기 둔화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9월 인하론 확산과 함께 연중 3회 인하 가능성 마저 대두되며 하락 압력 지속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6.14일 4.70/4.22 → 28일 4.75/4.40 → 7.18일 4.47/4.20

■ 7월 금통위, ‘금리인하로 차선 변경’ 시사했으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대

- 금통위,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 급증 등을 강조하며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
- 향후(3개월) 정책에 대한 금통위 의견 분포가 변경(현 수준 유지 5인→4인, 인하 가능성 고려 1인→2인)됐으며 ‘금리인하 시기 검토’ 문구가 통방문에 삽입
- 韓 금리는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대외 금리 하락, 외인 매수세 등으로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6.14일 3.25/3.30 → 28일 3.18/3.27 → 7.19일 오전 3.07/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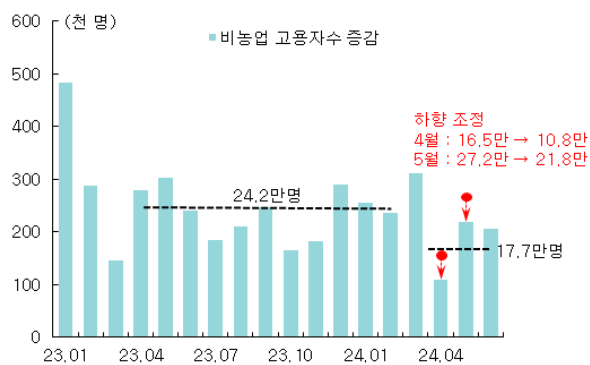
■ 주택시장 유동성 쏠림 강화 우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조기 금리인하 제약 요인

- 통방문 내 ‘금리인하 시기 검토’ 삽입은 물가 안정 추세에 대한 많은 진전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책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조성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언급
 - 오히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강조해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
-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의 상당 부분이 가계로 유입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전환 및 금리 하락이 주택시장 전망과 결부될 경우 부동산 시장내 자금 쏠림 확대 우려 증대
- 또한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한 국가들의 환율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높은 대외 개방도와 수입물가 변동에 취약한 국내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엔화 대비 위안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내수부진 만화+수출 증시+美 무역규제 강화’ 등의 타계책으로 위안화 절하 용인시 원화 약세를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

■ 금통위, 물가보다 금융안정에 방점을 둬 따라 금리인하 시점 시장 기대보다 지연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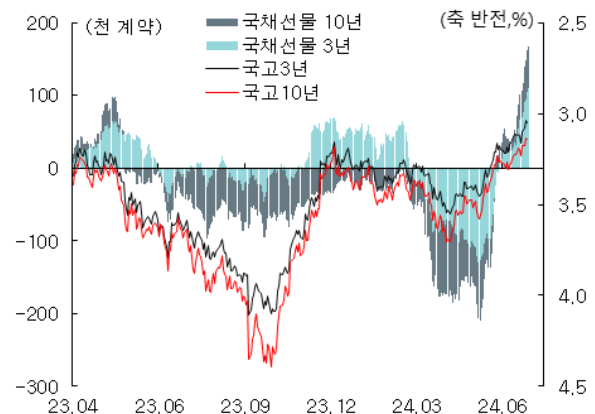
- 정부 및 정치권의 금리인하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 증대
 - 물가는 작년 하반기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내내 2%대 초반 유지 예상
- 한편, 7월 금통위를 거치며 시장 일각에서 주장했던 8월 인하론은 소멸.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에 대한 지표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4분기 중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 7월에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효과 점검을 위해 2~3개월 간의 지표 확인 과정이 필요할 전망
- 연준 9월 인하론 확산에 이어 연중 3회 인하 전망까지 대두되자 국내는 외국인 중심의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며 금리 큰 폭 하락해 50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
 - 다만, 단기간내 낙폭이 컸던 점, 트럼프發 노이즈 등 감안시 추가 하락 제한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0%~3.25%, 3.10%~3.35% 범위로 전망 

■ 美 비농업 고용자수 증감 추이



자료 : Bloomberg

■ 외국인 국채선물 누적 순매수 및 시중금리 추이



자료 : Bondweb

외환: 살아남은 트럼프를 이긴 파월의 비둘기

진 옥 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6월 佛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유로화 약세로 상승하였으나, 7월 들어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 전환 속에 매파적 금통위 결과 등이 맞물리며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한편, 달러화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에도 美 디스인플레이 기조와 고용시장 둔화로 금리인하 기대에 무게가 실리자 약세 전환하였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美·日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美 대선 구도를 주시하는 가운데 7월 BOJ의 국채 매입 축소 기대에 힘입어 1,300원대 중후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佛 정치적 리스크로 상승했으나 美 금리인하 기대 강화되며 상승폭 축소

- 원/달러 환율은 6월 佛 극우정당 집권 경계감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금리 향방에 대한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상승세 이어가며 한때 1,400원 선을 위협
 - 다만, 반기말 결제수요 유입, 외국인 순매수세 등 우호적 수급여건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확대(350억 달러→500억 달러)에 힘입어 추가 상승 제한
- 7월 들어 美 경기 둔화 조짐 속에 달러화가 약세 전환된 가운데 엔화 강세와 매파적 금통위(3.5% 동결) 결과 등이 맞물리자 상승폭 소폭 반납
 - 韓銀 총재는 향후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동시에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선반영을 과도하다고 평가

■ [국제 환율] 美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강화되며 달러화 약세, 유로화 반등

- 달러화는 佛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트레이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美 디스인플레이 기조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에 무게가 실리며 약세 전환
 - 3개월 연속 시장 예상을 하회한 美 CPI가 6월 들어 주거비 둔화로 3.0%를 기록하자 시장의 인하 기대 강화(CME Fedwatch 9월 인하 확률 5월말 55%→7.17 100%)
- 유로화는 佛 조기총선 발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하락하였으나, 극우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달러화가 약세 전환되자 반등
 - 다만, 7월 ECB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상승폭 축소
- 엔/달러 환율은 6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시점 연기로 한때 161엔을 상향 돌파하였으나, 외환 당국 개입 경계감과 트럼프의 엔저 비판 등으로 반락
- 위안/달러 환율은 부동산 시장 부진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 둔화로 中 2Q GDP가 4.7%를 기록하며 전분기(5.3%)와 예상치(5.1%)를 하회하자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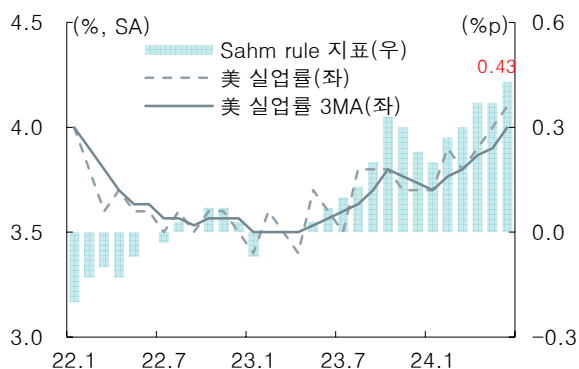
■ 충격에서 살아남은 트럼프 프라이싱(強달러)을 압도한 파월 의장의 도비시 발언(弱달러)

- 6월 말 美 대선 토론 이후 바이든의 신뢰가 하락한 데 반해, 트럼프는 형사소송 기각(사법 리스크 감소)과 충격 사태 등 우호적 여건 속에 당선 가능성 점증
 - 트럼프/바이든 지지율(Economist, %): 6.27일(토론) 45/44 → 7.13일(피격) 46/44
- 트럼프가 관세정책 강화와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를 표명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점화 및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와 美 장기 금리 상승
 - 트럼프는 中産 수입품은 60%, 전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를 제시
- 다만, 7월 의회 증언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둔화 우려를 표명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며 채권·외환 시장에서의 트럼프 프라이싱을 압도
 - 실업률 상승으로 6월 샴의 법칙 지표¹⁾가 0.43%p 기록하며 침체 분기점(0.5%p) 위협
-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무게가 실리며 달러화 강세 압력은 약화될 전망이나, 트럼프 리스크 잔존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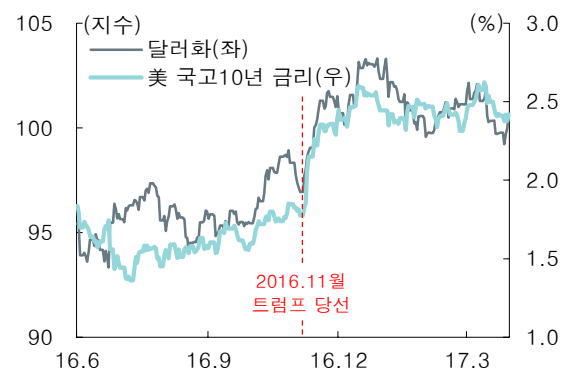
■ 원화는 7월 일본은행 회의와 8월 美 FOMC 결과를 주시하며 약세 압력 완화될 전망

- 파월에 이어 매파 인사인 월러 이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美 경기 둔화 전망이 맞물리며 달러화 강세 압력은 점차 완화될 전망
 - IMF는 7월 예상보다 더딘 美 성장세 반영하여 '24년 美 GDP 성장률 하향(2.6%)
- 트럼프의 엔화 약세 경계 발언 속 7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 발표 기대에 따른 엔화 반등 흐름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아래일 것으로 판단
- 이에 원/달러 환율은 美·日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美 대선 구도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한 달 간 1,350~1,400원에서 하방 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

■ 美 실업률과 샴의 법칙



■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지표 흐름



[1] 美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p를 상회할 경우 경기침체가 근접한 상황

부동산: 심리와 가격 모두 수도권 중심 회복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내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이거나 역세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하였다. 매수심리는 가격 저점인식이 확산된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청약경쟁률 또한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서울, 경기에서 상승해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지속되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급 확대 대책이 논의되나 실제 공급까지는 중장기가 소요되기에 시장 불안을 단기간 내 완화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 확대되며 전월 대비 상승 전환

- 입주물량 영향으로 지방은 하락했으나 수도권 내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05('24.4월) → -0.02(5월) → 0.04(6월)
-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 소비자의 선호가 특정 유형으로 쏠리면서 아파트는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연립은 하락폭 축소, 단독은 상승
 - 유형별 상승률(% , MoM, 5월/6월) : 아파트 -0.03/0.04, 연립 -0.11/-0.01, 단독 0.09/0.10
- 전세가격은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영향, 전세매물 부족 지속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11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07('24.4월) → 0.12(5월) → 0.11(6월)

■ 매수심리, 청약경쟁률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며 지역 간 시황 차별화 지속

- 가격 저점인식이 확산된 수도권에서 매수심리가 확대되고 매매 거래량도 수도권 핵심지역(서울 송파, 경기 안양, 성남 등) 위주로 증가
 -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수도권/지방) : 100.4/99.9('23.12월) → 122.9/105('24.6월)
- 청약경쟁률 또한 서울, 경기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방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 낮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시황 차별화
 - 청약경쟁률(배수, '24.7월) : 서울 164, 경기 100, 충북 47, 부산 1.5, 광주 0.6
- 대부분 지방에서 가격 하락세와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세는 가격이 회복되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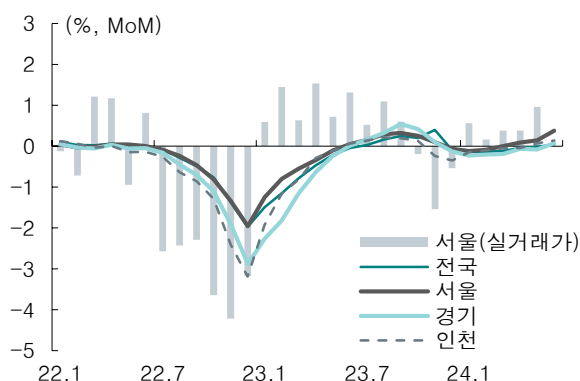
■ 시장 불안에 대응한 공급 대책이 논의되나 공급부족 우려 완화는 단기간 내 난망

- 정부는 가격 상승,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수도권 신규 택지(2만 가구) 공급과 정비사업의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급 대책으로 검토
 - 시장 과열을 염려해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건전성 규제 방안도 강구
- 하지만 착공 감소 영향으로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공급 확대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중장기가 소요되기에 시장 불안을 단기간 내 완화하기에는 역부족
- 민간 부문 공급이 위축되며 시장 불안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 미착공 물량의 착공 전환 지원, 주택공급 안정성을 위한 미분양 적체 해소 등이 고려될 필요
 - 민간 부문 착공물량(만호) : 49('21년) → 35('22년) → 22('23년) → 10('24.5월 누계)

■ 한편, 전세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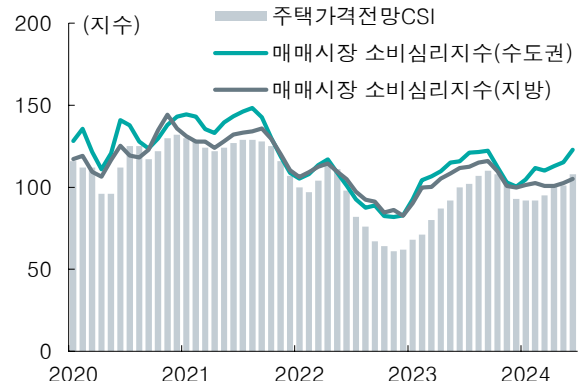
-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월세 갱신 적용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신규 전세공급도 감소 예상
 - 아파트 전세 매물(만호, 수도권/지방) : 8.4/5.5('23.12월) → 7.8/5.3('24.3월) → 6.7/4.8(6월)
- 반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우려 완화, 시장 관망세에 따른 전세 선호 증대, 월세 부담 확대 등으로 전세 수요는 확대
 - 전세대출금리(% , 예금기관 신규취급액) : 5.16('22년말) → 4.26('23년말) → 3.90('24.5월)
- 시장 관망세로 인해 매매가격은 수도권 핵심지역 중심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세 확대에 영향을 미칠 듯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주택가격전망CSI,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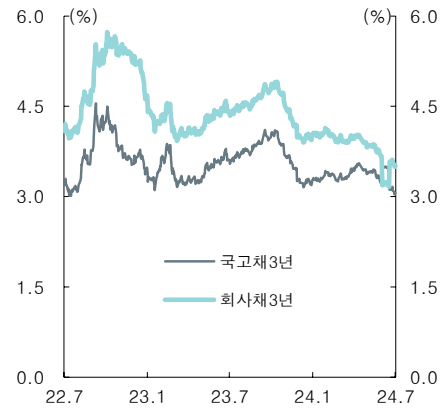
주 :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소비자들의 판단을 조사한 결과

자료 :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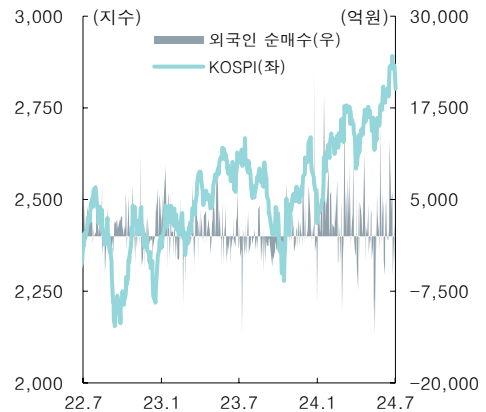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6월말	3.59	3.60	3.18	3.20	3.48	3.66
7월 12일	3.53	3.55	3.28	3.55	3.10	3.12
7월 15일	3.51	3.54	3.29	3.54	3.08	3.10
7월 16일	3.48	3.55	3.28	3.50	3.04	3.06
7월 17일	3.52	3.54	3.29	3.51	3.05	3.07
7월 18일	3.52	3.52	3.29	3.51	3.06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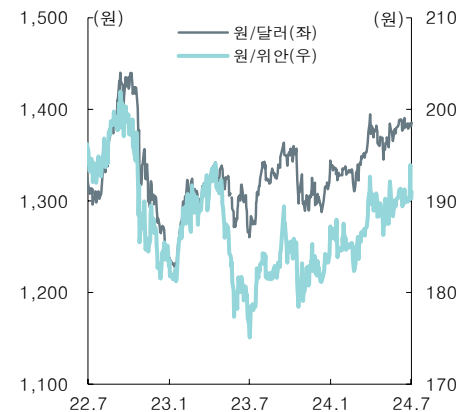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6월말	2,797.8	110,201	611	322
7월 12일	2,857.0	140,857	408	-5,501
7월 15일	2,860.9	121,657	424	-770
7월 16일	2,866.1	126,603	678	1,883
7월 17일	2,843.3	139,235	549	-2,566
7월 18일	2,824.4	155,482	658	-3,495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6월말	1,384.5	879.9	192.2	1,501.8
7월 12일	1,379.6	874.0	190.3	1,504.5
7월 15일	1,382.8	874.9	190.5	1,506.7
7월 16일	1,384.9	874.5	193.9	1,509.2
7월 17일	1,381.5	884.3	190.2	1,511.1
7월 18일	1,381.7	877.9	190.3	1,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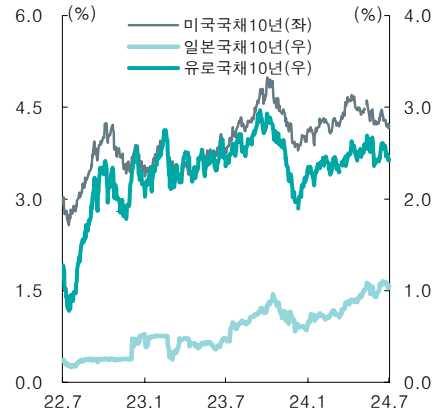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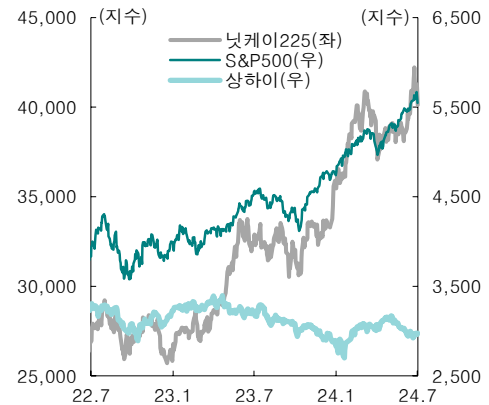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6월말	5.33	5.32	4.75	4.40	1.06	2.50
7월 12일	5.33	5.29	4.45	4.18	1.07	2.50
7월 15일	5.33	5.29	4.46	4.23	1.07	2.47
7월 16일	5.33	5.28	4.42	4.16	1.03	2.43
7월 17일	5.33	5.28	4.44	4.16	1.04	2.42
7월 18일		5.28	4.47	4.20	1.04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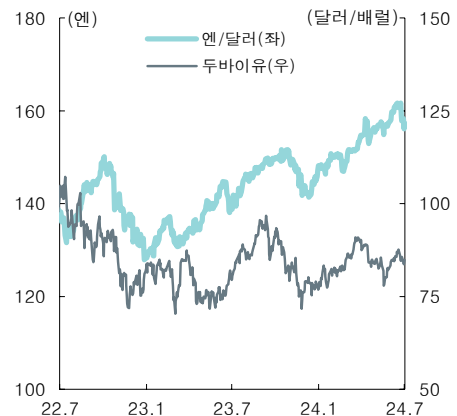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6월말	5,460.5	39,583.1	2,967.4	4,894.0
7월 12일	5,615.4	41,190.7	2,971.3	5,043.0
7월 15일	5,631.2	-	2,974.0	4,983.1
7월 16일	5,667.2	41,275.1	2,976.3	4,947.8
7월 17일	5,588.3	41,097.7	2,962.9	4,891.5
7월 18일	5,544.6	40,126.4	2,977.1	4,870.1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6월말	160.85	1.071	81.4	2,339.6
7월 12일	157.84	1.091	85.7	2,420.7
7월 15일	158.05	1.089	84.7	2,428.9
7월 16일	158.31	1.090	83.8	2,467.8
7월 17일	156.14	1.094	83.7	2,459.9
7월 18일	157.35	1.089	84.8	2,456.4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7월 19일 인쇄

2024년 7월 22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